

# 민주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 올인

## 집권플랜 키워드 '민생진보' 뒷받침...여권 '친서민정책'과 차별화

### 총선·대선 대비 당내 특위 구성 첫 회의

민주당이 13일 차기 집권 탈환을 위한 화두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선투표 '2차 회담대장정'에 들어갔다. 두 개의 키워드로 '민생진보'를 떠받치는 양날개로 삼아 내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그 첫걸음으로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민주화 특위'(헌법 119조 위원회)와 '보편적 복지 특위'를 구성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특위' 위원장에는 진보·개혁 성향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보편적복지 특위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각각 영입됐다.

'헌법 119조 위원회'란 별칭이 붙여진 경제민주화 특위는 '국가가 경제

력 나눔 방식과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2항에 근거, 재벌개혁과 양극화 문제 해법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 특위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이다.

보편적복지 특위는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간 복지가수 주도권 경쟁으로 연초부터 위원장 선정을 놓고 장기간 표류하다 '제3의 인사'를 위원장에 기용하는 쪽으로 절충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분과에도 오르게 됐다.

특위는 이날 하순 '3+3' 복지정책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경제 진보는

민생진보의 양대 개념"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를 민생 해결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보복이 두려워 공정위나 동반성장위에 고발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속에서 중소기업만 희생되고 국민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대 재벌그룹 계열사는 2006년 500개에서 올해 4월까지 1087개로 배가 넘었지만 고용은 고작 10% 증가했다"며 "대기업이 돈벌이가 된다면 골목상권까지 무차별로 진입하는 것은 재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여준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재벌은 일반 국민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이었다"며 "민주공화

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재벌특권 공화국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드라이브에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매개로 '정의' 개념을 꺼내들었으며 여권의 친서민 행보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 당 관계자는 "여야간 정책경쟁이 단순한 복지 논쟁에서 정의의 논쟁으로 옮겨 붙게 되면 민주당이 도덕성과 사회정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밝히는 원외 부의장단은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 중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아권통합특별위원회 공동주최 '2012년 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아권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에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야권대통합' 여전한 온도차

### 진보신당 등 단일정당·기득권 포기 제안

민주당 주축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야권 대통합 토론회'에서 야권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민주당과는 달리 다른 진보정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당 사이에) 분명히 작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어떤 차이도 대통합의 소명 앞에서는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득권을 버리고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아권통합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변하고 있고,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연합공천은 적당히 이기는 길이고, 대통합은 확실하게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온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야권의 대통합을 통한 단일정당 형성"이라며 "총·대선에서 분명한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순성 원장은 "야권의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으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진보신당 박용진 전

부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는 통합정당 제안을 분노와 불신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는 "진보정당 사람들은 민주당 정권 때 당한 걸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 담합을 위한 '지분 논의'가 아니라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연합의 모델이 돼야 한다"며 "선 정책연합 후 통합"을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 다시 '민생탐방'

### 희망대장정 돌입...주요현장 돌며 토론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동고동락 민생실천'이라는 이름으로 '2차 희망대장정'에 들어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고동락 민생실천' 발대식을 갖고 2차 희망대장정의 출발을 선언했다.

그는 "또다시 민생이다. 민생은 민주당의 최고 목표"라며 "국민과 동고동락하고 민생 실천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1차 희망대장정에서 전국 곳곳을 훑으며 국민 삶의 현장을 둘러본 손 대표는 내달까지 진행할 2차 대장정에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 눈과 귀에 머물지 않고 팔과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다.

주요 분야별 당 특위와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 전문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

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현장 활동에 이어 화·목요일에는 민주당의 정책을 관련 단체와 기관에 설명하며, '김대리의 날'로 정한 금요일에는 셀러브리티들과 만나 '정책 공감'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금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정한 손 대표는 '시장은 공정하게 노동은 차별 없게'를 내걸고 중소기업주간(11일), 중소기업(12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중소기업청을 지식경제부에서 독립시켜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손 대표는 14일에는 부산 한진중공업 현장을 방문하고, 내주부터 한 주씩 무상급식과 농어민 지원, 비정규직, 주거복지, 반값등록금 등을 주제로 활동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반값등록금' 일보후퇴?

### 이용섭 의원 "사립대 구조조정과 연동 내년 시행 어렵다"

민주당이 내년도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 방침을 사립대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수반한 단계적 등록금 인하'로 바꿔 추진기로 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경우 소요재원은 기획단 추산

기준으로 2014년까지 약 10조~12조 원이다. 이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 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3550억원(연간 5조7850억원)에 비해 5조~7조원 정도 적은 액수다.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사립대 등록금 인하는 구조조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반값으로 낮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하순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대통령의 고심

### 권재진 법무기용 당내 반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 문제와 관련, "청문회 통과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최종 결정 전에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홍 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권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남경필 당 최고위원이 재고를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선에 대한 결심이 서면 여당 지도부와 상의해 내정 발표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당내 갈등 지속 한나라

### 새지도부 구성 이후에도 중진들 쓴소리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에도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무총장 인선의 후폭풍이 불고 있으며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설을 놓고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당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민생정치를 위해 지방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전국 민생정책 투어를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직 인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경권 사무총장도 "다음 공천에는 특정 계파라고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결코 없을 것"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중진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의와 국회 부

의장은 "인사를 표결로 밀어붙이는 정치적 부재가 더 큰 과장을 낳으면 어떻게 하는 우리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경재 의원의 "사무총장이 돈과 공천권을 쥐고 있어 막강하다는데, 18대 총선에서 칼 휘두른 사무총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며 18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던 이방호 전 의원의 사례를 거론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 대표가 어떤 결과를 주문했을 때 사무총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면 아무런 제도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내편)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오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250평(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8.9, 10.9m
- ▶ 호이스트: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의대지임,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2억9천조합) •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 대지: 1038㎡, 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울출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한국아메리카우문부근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 지: 1425㎡ 투지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답: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전 문 방 수 방 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